

‘신화 다시 쓰기’ 소설 속의 여성 주인공 ‘조력자’ 양상 연구

裴桃任*

— 目 录 —

1. 들어가며
2. ‘이야기’와 ‘다시 쓰기’의 변형
3. 여성 주인공 ‘조력자’의 고난
 - 1) 여성 주인공 조력자의 ‘요건’
 - 2) 여성 주인공 조력자의 ‘시련’
 - 3) 여성 주인공 조력자의 ‘희생’
4. 나오며

1. 들어가며

2005년에 감독 황젠신(黃建新, 1954-)의 영화 <나에게 표창장을 줘요(求求你, 表揚我)>가 관객을 만났다. 작품은 우직하고 성실한 노동자 양홍치(楊紅旗)가 자신을 표창해줄 것을 요구하며 『내일조간(明日晚報)』 신문사로 기자 구귀거(古國歌)를 찾아오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양홍치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에 강간당하는 여대생 어우양화(歐陽花)를 구해주었다. 양홍치가 표창장을 받으려는 이유는 자신의 정의실현 행위를 알리려는데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 동기는 아주 소박하고 단순하다. 중병에 걸려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 韓國放送通信大學校 中語中文學科 講師

아버지 양성리(楊勝利)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양성리는 한창시절에 중국의 으뜸가는 노동모범이었고, 그의 집은 벽마다 그가 받은 표창장으로 도배되어 있다. 하지만 그 많은 표창장 가운데 아들의 것이 한 장도 없다는 점은 그의 한(恨)이고, 벽 한가운데에 아들이 받은 표창장을 띄하니 붙이기만을 바란다. 그래서 워낙 효자인 양홍치는 더도 말고 딱 한 장을 받기를 원한다. 양성리가 한을 품은 채로 눈을 감자, ‘양홍치 선행’ 기사가 당시 기자(현재 부장)의 손에서 보도된다. 그런데 어우양화는 온 세상에 알려지고, 입사 예정된 회사에서 거절당하는 등 이중삼중의 피해자가 되고 만다. 이에 기자 구귀거는 사표를 내고 여자 친구 미이(米一)와도 헤어진 뒤에 홀로 베이징(北京)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에필로그 한 장면이 스크린에 나타난다. 구귀거가 중국의 가장 커다란 도시에서 많은 사람의 물결 속에 파묻힌 어느 날, 그는 톈안먼광장(天安門廣場)에서 양성리가 앉은 휠체어를 밀고 가는 양홍치와 ‘스치고’ 지나가게 된다.

이 영화를 가볍게 감상한다면 단순한 해프닝이나 코믹물 한 편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신문사의 필요’+‘지역사회 간부의 전략’+‘표창장 달인의 한풀이’+‘효자의 도리 완성’으로 포장된 ‘양성리의 가짜 장례식’과 ‘선행 보도’는 ‘영웅 만들기’의 교묘한 속임수를 보여준다. 신문사는 구독자와 발행부수를 늘리고, 지역 간부는 자신의 치적과 자기 고장을 선전하기 위해, 표창장 달인과 그 아들과 공동으로 깜짝 ‘영웅’을 만들어낸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어우양화는 영웅 ‘만들기’의 ‘조력자’가 된다. 그래서 많은 영웅적이거나 신화적인 인물과 일이 원래는 그저 그런 것이었는데, 어떤 부분은 가위질되고 어떤 부분은 부풀려졌을 개연성이 있다. 이는 신화전설도 시공간의 변화에 따라서 누구든지 가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재생산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1999년 봄, 캐넌케이트 출판사의 편집장이자 발행인인 제이미 빙(Jamie Byng, 1969-)은 다양한 지역, 다양한 시대, 다양한 신화들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다시 쓰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중국 작가로는 리루이(李銳, 1950-), 예자오옌(葉兆言, 1957-), 쑤통(蘇童, 1963-)과 티베트 출신인 아라이(阿來, 1959-)가 동참했다. 본고는 쑤통의 『눈물(碧奴)』(2006), 리루이의 『사람의 세상에서 죽다(人間)』(2007), 예자오옌의 『후羿(后羿)』(2007), 아라이의 『격살이 왕(格薩爾王)』(2009) 등 ‘신화 다시 쓰기’ 소설 네 편 속의 ‘여성 주인공’을 대상으로, 작은 목소리를 가진 조력자로서의 역할과 고난의 패턴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앞의 영화 <나에게 표창장을 줘요>의 ‘어우양화’와 마찬가지로 『눈물』의 벽노(碧奴), 『사람의 세상에서 죽다』의 백낭자(白娘子), 『후羿』의 항아(嫦娥), 『격살이 왕(格薩爾王)』의 주모(珠牡)는¹⁾ 남성 주인공이 ‘영웅성’과 ‘초월성’을 완성하는데,²⁾ 없어서는 안 될 주변 인물이다. 이들은 늘 신화적 주인공 뒤쪽에 있고, 그의 좌충우돌하는 사건 주변에 있으며, 이들의 장애를 부채질하기도 하고 갈등을 해소하기도 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성 주인공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물론 ‘주인공’을 고귀하게 만드는 점에서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1) 蘇童의 『碧奴』의 ‘碧奴’는 ‘벽노/비누’, 李銳의 『人間』의 ‘白娘子’는 백낭자/바이낭자, 葉兆言의 『后羿』의 ‘嫦娥’는 ‘항아/창어’, 阿來의 『格薩爾王』의 ‘珠牡’는 ‘주모/주무’에서 본고에서는 분석 대상 텍스트 네 편의 일관성을 고려해 ‘벽노’, ‘백낭자’, ‘항아’, ‘주모’ 등 독음(讀音)을 사용했다.

2) ‘신화 다시 쓰기’ 기획과 주인공의 영웅성에 대해서는 배도임의 「신화 다시 쓰기: 李銳의 『人間』, 葉兆言의 『后羿』, 蘇童의 『碧奴』, 阿來의 『格薩爾王』의 ‘반영웅주의’ 비교를 중심으로」(『중국학연구』, 제73집, 2015, 51-80쪽)에서 일차적으로 분석했고, 아울러 기존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므로, 본고에서는 생략했다.

2. ‘이야기’와 ‘다시 쓰기’의 변형

영국의 신화학자 로버트 시걸(Robert A. Segal)은 신화란 “이야기(story)”이고, “중요한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했다.³⁾ 신화전설이 ‘이야기’라면, ‘다시 쓰기’는 신화전설 원래의 뼈대를 축소하거나 확대하거나 변형시키거나, 그리고 재구성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이 된다.

쑤통의 『눈물』의 원형은 맹강녀가 울어서 만리장성을 무너뜨린 ‘맹강녀전설(孟姜女傳說)’이다. 이것은 최초에 『좌전(左傳)』에서 보였다고 한다.

제나라 사람 기량의 아내는 애통해할 적에도 예의를 잃지 않고
일하며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아 사람을 탄복하게 했다.⁴⁾

『좌전』의 기량의 아내 이야기에 “눈물의 애끓음(哭之哀)”이 덧붙여진 것은 서한(西漢) 말년에 이르러 유향(劉向, B.C.77-B.C.6)이 『열녀전(列女傳)』에서 ‘다시 쓰기(重述)’한 것이라 한다.

기량의 아내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고, 친정이든 시댁이든 모두
일가친척이 없어 남편이 죽은 뒤에 외톨이 홀몸이 됐다. 기량의
아내는 ‘그래서 성벽 아래 남편의 시신이 묻힌 곳에서 곡을 했다.’
울음소리가 심히 괴롭고 애달픈지라 길을 지나는 사람마다 감동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열흘 뒤에 그 때문에 ‘성벽이 무너졌다.’⁵⁾

3) 로버트 시걸, 이용주 옮김, 『신화란 무엇인가』, 과주, 아카넷, 2017, 9-11쪽.

4) 孟姜女的傳說最早出自『左傳』。記述和褒揚的是，齊人杞梁之妻(也就是後世的孟姜女)在哀痛之際，仍能以禮處事，神志不亂，令人欽佩。施曉宇，『大學文學寫作』，福州，福建教育出版社，2012，89쪽.

5) “哭之哀”……西漢末年的劉向，在『列女傳』中先重述了『左傳』中杞梁妻的故事，然後他斷續寫到：杞梁妻沒有子嗣，娘家婆家也都沒有親屬，夫死之後成了個孤家寡人。杞梁妻“就其夫之尸於城下而哭之”，哭聲十分悲苦，過路人無不感動。十天以後，“城爲之崩”。

유향의 기록을 따져보면, 기량의 아내는 자식도 없이 과부가 된 자신의 신세를 괴롭고 슬퍼한 데서 '눈물'을 흘린 것인데, 성벽의 붕괴와 관련성을 가진 듯이 얼버무려 서술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이 데올로기적으로 개편된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좌전』에서는 (큰 고통을 당해서도 예의범절을 지키는) 아녀자의 기품을, 『열녀전』은 아녀자가 수절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라는 직접적인 말은 없지만) '지성감천'임을 강조했다. 사회도덕(예컨대 유학)의 기품을 중시하고 선양할 때, 권력자의 폭정 부분을 생략한 채로 아녀자의 도리만을 가르치는 데 활용했다. 아마 뒤로 가면서 기량의 아내는 '맹강녀'라는 이름을 찾고 남편의 시신이 드러난 이야기도 가미되었을 것이다.

리루이의 『사람의 세상에서 죽다』의 원형은 백사가 사람이 된 이야기 '백사전(白蛇傳)'으로 당대(唐代) 전기(傳奇)에서 발전한 것이다. 이는 풍몽룡(馮夢龍, 1574-1646)이 『경세통언(警世通言)』에서 처음 기록했다고 한다.⁶⁾

남송 소흥연간에 천년을 수련한 뱀이 둔갑한 백소정이라는 미녀가 있었다고 전한다. 그녀와 시녀 소청이 항저우 시후에서 젊은 사내 허선을 만났다. 그들이 비를 피해 같은 배를 탔고, 백소정과 허선은 첫눈에 반해 부부의 연을 맺었다. 혼인 뒤에 허선은 이따금 백낭자의 행동이 수상쩍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루는 전장 금산사의 고승 법해가 허선에게 바리를 주어 백소정을 가두게 했다. 허선이 집에 돌아와 그리 해서 정말 백소정과 소청을 가둘 수 있었다. 그녀들의 원래 모습이 드러났고, 그제야 허선은 그녀들이

施曉宇, 『大學文學寫作』, 福州, 福建教育出版社, 2012, 89쪽.

6) 戴不凡 외, 『名家談「白蛇傳」』, 北京, 文化藝術出版社, 2006, 2쪽. 戴不凡(1922-1980)은 「試論『白蛇傳』故事」(『文藝報』, 제11호, 1953)에서, 백사전의 이야기는 당대(唐代) 전기(傳奇)에서 출발했고, 『경세통언』에 수록된 「백낭자가 영원히 뇌봉탑에 놀리다(白娘子永鎮雷峰塔)」에서 최초의 완벽한 스토리를 갖춘 것으로 설명했다. 이것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겠다.

천년 동안 도를 닦은 백사와 청사라는 것을 알게 됐다. 뒤에 법해가 바리를 들고 뇌봉사에 와서 사람들에게 탐을 쌓게 하고 뇌봉탐이라 이름 붙였다. 이로부터 백소정과 소청 두 사람은 탐에 갇혀 놀려있게 됐다.⁷⁾

『경세통언』에는 백사녀의 사람의 세상에서의 삶의 정보를 상당히 많이 담고 있다. 백사전의 현대식 버전은 리루이에 앞서 당대 제일의 대중 통속소설가 장헌수이(張恨水, 1895-1967)가 1954년에 통속문예출판사(通俗文藝出版社)에서 출판한 『백사전』⁸⁾ 1955년의 텐한(田漢, 1898-1968)의 경극극본 『백사전』⁹⁾이 대표적이다.

예자오옌의 『후예』의 원형은 화살을 쏘아 해 아홉 개를 떨어뜨린 ‘후예가 해를 쏘다(后羿射日)’와 ‘항아가 달로 달아나다(嫦娥奔月)’이다. 후예는 뛰어난 궁수(弓手)라는 이야기에 대해, ① 『산해경·대황남경(山海經·大荒南經)』에서 “희화는 제준의 아내인데 해 열 개를 낳았다”, ② 전설에서 “아주 오랜 옛날에 후예가 산에서 사냥할 때 월계수 아래서 항아를 만났고 두 사람이 월계수의 중매로 부부가 되었다”, ③ 『회남자남명훈(淮南子·覽冥訓)』에서 “후예가 서왕모에게 불사약을 얻었는데, 항아가 훔쳐서 달로 달아나 낙담하고 슬퍼했다”, ④ 『맹자(孟子)』와 『회남자(淮南子)』에서 “은혜를 저버린 제자 봉몽에게 살해당했다”¹⁰⁾고 기록했다고 한다. ①-④를 정리하면 후예

7) 據明末『警世通言』記載，傳說南宋紹興年間，有一個千年修煉的蛇妖化作美麗女子叫白素貞，她和侍女小青在杭州西湖與青年男子許仙相遇，他們同舟避雨，白素貞與許仙一見鐘情，便結為夫妻。婚後，許仙發現白娘子的行為有時表現得怪異。一天，鎮江金山寺高僧法海送給許仙一個鉢盂，讓他用這個罩住白素貞。許仙回家一試，果然罩住了白素貞和小青。她們顯露原形，許仙才知道，她們乃是千年成道的白蛇和青蛇。隨後，法海就提着鉢盂，來到雷峰寺前，讓人在山上砌成七級寶塔，取名雷峰塔。從此白、青二人就被鎖於塔中。朱曉東，『戲曲』，重慶，西南師範大學出版社，2014，107-108쪽.

8) 張恨水，(中國傳奇第六冊)『白蛇傳』，台北，莊嚴出版社，1990. 장헌수이는 「前言」(1-5쪽)에서 자신이 원형으로 삼은 백사전의 갈래에 대해 설명했다.

9) 田漢，(京劇)『白蛇傳』，北京，作家出版社，1955. 텐한은 「序」(1-5쪽)에서 백사전 극본을 창작해 무대에 올렸던 과정과 출판 정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와 항아는 부부이고,(결혼) 후에가 해를 떨어뜨린 신들린 궁수였으며,(업적) 항아는 후에의 불사약을 먹고 달로 갔고, 후에는 맞아 죽었다는(대단원) 줄거리의 기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현대의 루쉰(魯迅, 1881-1936)도 「달로 달아난 이야기(奔月)」(『莽原』, 제2권 제2기, 1927)에서,¹¹⁾ 활숨씨만 믿고 온 세상의 사냥감을 모두 잡아먹어버린 뒤에 사냥감을 찾아 헤매는 예와 그런 무능한 남편을 구박하고 먹을거리 타령이나 하는 히스테릭한 부인으로서 급기야 예의 선약(仙藥)을 훔쳐 먹고 '달아난' 악처 항아를 그렸다.

아라이의 『격살이 왕』의 원형은 티베트의 전래 영웅 서사시 '격살이왕전(格薩爾王傳)'이다. 격살이왕전은 구술로 전해지다가, 11세기 전후에 불교가 티베트 지역에 전파되고 티베트 승려들이 이 이야기를 편찬, 소장, 보급하기 시작하면서 기본 틀이 갖추어지고 최초의 필사본도 등장했다. 필사본의 편찬자, 소장자와 보급자는 주로 닝마파(寧瑪派) 승려였고, 일부는 굴장대사(掘藏大師)였다고 한다. 이들이 편찬, 필사한 『격살이왕전』은 처음에 '잠복한 필사본(伏藏的抄本)'이라 불렸으며, 주요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뉘었다.¹²⁾

10) 『山海經大荒南經』載：“羲和者，帝俊之妻，生十日。”……很久以前，后羿到山中狩獵的時候，在一棵月桂樹下遇到姮娥，二人便以月桂樹為媒，結為夫婦。……『淮南子·覽冥訓』曾記載：“羿請不死之藥於西王母，姮娥竊以奔月，悵然有喪，無以續之。……根據戰國時思想家孟子所著『孟子』和西漢初年劉晏(公元前179-前222年)編成的『淮南子』都說是被恩將仇報的徒弟逢蒙所暗害。趙永斌，『尋找太行：中華文明的源頭究竟在哪裏』，北京，世界知識出版社，2012，103-105쪽；후예와 항아에 관한 여러 변형에 대해서 『신화로 읽는 중국의 문화』(金榮權，임진호 옮김，서울，문현，2018，167-199쪽)를 참고하면 또 다른 버전들을 알 수 있다.

11) 魯迅，「奔月」，『魯迅小說全集』，武漢，長江文藝出版社，2005，304-315쪽.

12) 在十一世紀前後，隨着佛教在藏族地區的復興，藏族僧侶開始介入『格薩爾王傳』的編纂，收藏和傳播。史詩『格薩爾』的基本框架開始形成，並出現了最初的手抄本。手抄本的編纂者、收藏者和傳播者，主要是寧瑪派的僧侶，一部分就是“掘藏大師”。他們所編纂、傳抄的『格薩爾王傳』，初稱為“伏藏”的抄本。……主要分成三個部分：第一，降生，即格薩爾降生部分；第二，征戰，即格薩爾降伏妖魔的過程；第三，結束，即格薩爾返回天界。劉曉輝，『格薩爾史詩/新疆瑪納斯』，長春，吉林出版集團有限責任公司，2014，

[표] 잠복한 필사본 『격살이왕전』 내용 구성

명칭	열개	부제목	내용
격살이왕전	첫째 부분	강생	사람 세상에서 격살이가 태어나다
	둘째 부분	정복전쟁	격살이가 모든 요마를 제압하다
	셋째 부분	귀천	격살이가 하늘나라로 돌아가다

전래 서사시 속의 영웅 격살이 왕의 일생은 다음과 같다.

격살이는 1038년에 태어나 1119년에 향년 81세로 사망했다. 격살이는 어려서 집안이 가난했고 지금의 아쉬, 다군향에서 방목했다. 작은아버지의 이간질로 말미암아 어머니와 아들이 외지로 내쫓겨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며 살았다. 열여섯 살에 말 달리기 대회에서 왕으로 선출되어 제위에 올랐다. 그는 링나라의 서울을 썬저우다찌쥬으로 옮기고 또 주모를 아내로 삼았다. 격살이는 일생동안 요마를 제압하고 포악한 사람을 제거하고 착한 백성을 편히 살게 하고 남북을 정복해 부락 150여 곳을 통일시켰으므로 링나라의 영토가 하나로 통합됐다.¹³⁾

격살이의 인물 원형을 보면, 목동이었고(비천한 출신) 외지로 내쫓겼으며(시련) 말 달리기 대회에서 왕이 되었고(입지) 주모를 아내로 삼았으며(결혼) 요마를 제거하고 선정(善政)을 베풀었다.(업적)

앞에서 살펴본 개별적인 원형에서 현대 ‘신화 다시 쓰기’로 변화하는 과정의 남성 주인공과 여성 주인공의 변형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29-30쪽.

13) 史詩英雄格薩爾王生於公元1038年，歿於公元1119年，享年81歲。格薩爾自幼家貧，於現阿須、打滾鄉放牧，由於叔父間離，母子泊外，相依爲命。16歲賽馬選王并登位，遂進往嶺國都城森周達澤宗并娶珠姆爲妻。格薩爾一生降妖伏魔，除暴安良，南征北戰，統一了大小150多個部落，嶺國領土始歸一統。劉曉輝，『格薩爾史詩/新疆瑪納斯』，長春，吉林出版集團有限責任公司，2014，30쪽.

[표] 남성 주인공과 여성 주인공 이야기의 변형 양상

작품명	원형	신화 다시 쓰기	
눈물	〈잔 기량의 아내가 기쁨 있다 〈후 고독한 기량의 아내가 남편의 시신이 묻힌 곳에서 울다	- 고아인 벽노와 만기량이 부부가 되다 - 남편에게 겨울옷을 주기 위해 벽노가 눈물바람의 여정을 떠나다	만리장성이 무너져서 만기량의 시신이 튀어 올라왔다
사람의 세상에서 죽다	백낭자와 허선의 만남→사랑→이별	- 백사와 청아가 사람의 세상에 오다 - 언공(허선)이 아들 언사린(분해아)에게 어머니 백낭자의 삶과 죽음을 구술하다 - 법해가 백낭자를 제압하다(수찰)	백낭자가 자비를 베풀고 자진하다
후예	해 아홉 개를 떨어뜨린 예달로 달아난 향아	〈상편〉 해를 쏘다 - 예와 향아의 탄생→사랑→업적 달성→후예(왕) 즉위 〈하편〉 달나라로 가다 - 후예와 향아의 갈등→이별	향이는 선단을 먹고 달로 가다 후예는 현치와 봉몽의 몽둥이에 맞아죽다
격살이왕	영웅 서사시 격살이 일대기 〈첫째 부분〉 강생 〈둘째 부분〉 정복전쟁 〈셋째 부분〉 귀천	이야기꾼 진미의 꿈과 순회공연 〈1부〉 신의 아들이 태어나다 - 추방→교역지 개척→繼國 발판 마련 〈2부〉 말 달리기로 왕이 되다 - 식인 요마 제거와 왕의 탈선 - 주모가 백장왕에게 시집가 아들 낳다 〈3부〉 수사자가 하늘로 돌아가다 - 사람의 세상에서의 업적을 마무리하다	격살이가 제1왕비 주모와 제2왕비 매살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돌아가다

앞의 [표]에서 보면, 맹강녀가 성벽 아래 묻힌 남편의 시신을 위해 슬피 울었다는 전래 민간전설의 ‘눈물’ 모티브는 쑤통의 『눈물』에서 남편 만기량(萬浬梁)이 행방불명되고부터 억눌린 눈물을 봇물 터지듯 흘린 벽노의 망부가(亡夫歌)이자 여행기로 확장되었다. 전통 민간전설의 ‘백사전’의 원형인 백낭자(白娘子)와 허선(許宣)의 만남-사랑-이별의 풀 스토리는 리루이의 『사람의 세상에서 죽다』에서 더욱 복잡한 인물 네트워크와 갈등 구조를 갖게 됐다.¹⁴⁾ 그 가운데서 아버지 언공(허선)이 아들 언사린(분해아)에게 사람의 세상에서의 백낭자

14) 리루이의 『사람의 세상에서 죽다』의 백사전의 현대적 변용에 대해서는 배도임의 「李銳 小說 研究」의 ‘제4절 『白蛇傳』의 현대적 변용: 신화전설 계열’과 ‘제3절 개인의 욕망 양상과 좌절’의 4. 『人間』의 타자 ‘粉孩兒’와 ‘香類娘’ 부분에서 비교적 세분화해서 분석했다. 배도임, 「李銳 小說 研究」, 한국의국어대학교, 박사, 2012, 75-86, 215-226쪽.

(백소정)의 삶을 구술해주고, 「법해수찰(法海手札)」에서 법해(法海)의 입을 통해서 백낭자의 자비로운 죽음이 기록된다. 해 아홉 개를 떨어뜨린 예(羿)와 달로 달아난 항아(嫦娥)의 전통적인 스토리는 예자오옌의 『후예』에서 우직한 예와 ‘현부(賢婦)’인 항아의 운명적인 사랑-업적 달성-갈등-이별의 대하드라마로 재탄생했다. 티베트에서 지난 1천 년 동안 전승된 영웅 서사시 ‘격살이(格薩爾)’ 일대기는 아라이의 『격살이 왕』에서 티베트 땅을 개척하고 티베트 사람들을 정착시킨 다음에 하늘나라의 환영을 받으며 돌아가는 영웅담으로 다시 써졌다.¹⁵⁾ 아라이는 초원의 양치기 진미(晉美)라는 ‘중권(仲肯)’ 이야기꾼의 ‘격살이 일대기’ 꿈과 순회공연,¹⁶⁾ 사람을 잡아먹는 요마들의 횡행, 하늘나라의 젊은 신 최파갈와(崔巴噶瓦)가 사람의 세상에 온 것과 하늘나라 어머니 랑만달모(朗曼達姆)의 현몽(現夢) 등을 가미했다.

3. 여성 주인공 ‘조력자’의 고난

프랑스의 문학평론가이자 사회인류학자인 르네 지라르(René Girard)는 “희생양을 성스럽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살해자들”이라고 설명했다.¹⁷⁾ 어떤 집단이 ‘위기(타인을 위해 대가를 치르는 사건)’가 생기게 되면,¹⁸⁾ 집단은 ‘한 사람’을 지목해 ‘희생’시켜서¹⁹⁾

15) 배도임, 「신화 다시 쓰기: 李銳의 『人間』, 葉兆言의 『后羿』, 蘇童의 『碧奴』, 阿來의 『格薩爾王』의 ‘반영웅주의’ 비교를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제73집, 2015, 63-64쪽.

16) 木訥의牧羊人變成胸藏萬千詩行的“仲肯”——神授的說唱者. 말주변이 없고 모든 것이 어설퍼던 양치기가 마음속에 수만 가닥의 시를 품고 있는 사람, 신이 내린 이야기꾼 ‘중권’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阿來, 『格薩爾王』, 重慶, 重慶出版社, 2009, 109쪽; 문현선 옮김, 『거싸얼 왕』, 파주, 문학동네, 2016, 235쪽.(이하 저자와 쪽수만 표시)

17) 르네 지라르, 김진식 옮김, 『희생양』, 서울, 민음사, 2007, 148쪽.

18) 르네 지라르, 김진식 옮김, 『희생양』, 서울, 민음사, 2007, 185쪽. 집단이 위기에

위기에서 벗어난다. 이 ‘한 사람’은 희생 뒤에 위기를 해결해준 고귀한(성스러운) 인물(영웅)이 되는 것이다. 르네 지라르가 보기에 “희생양 메커니즘”이 작동된 것이²⁰⁾ 신화전설 텍스트이고, 어떤 의미에서 집단의 (희생양을 지목하고 희생시킨) ‘폭력’을 은폐, 위장한 이야기이다. 집단이 내부의 특정한 대상을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희생물로 선택하며, 만장일치의 폭력(희생양 지목)을 행사해 희생물을 희생시키고,(희생제의) 위기를 극복하며 희생물을 ‘신격화’한다. 이것이 영웅이 탄생하고 신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요컨대 신이나 영웅이란 희생양의 또 다른 이름이다.

‘신화 다시 쓰기’ 소설 네 편에도 이런 “만장일치 집단에 의해 희생되는 신화의 인물들”²¹⁾이 있다. 이 소설 네 편에서 집단이 영웅(희생양)을 필요로 하는 위기를 보면, 쭈통의 『벽노』에서 백성은 황제가 맘대로 울지도 못하게 하고 만리장성을 쌓아야 한다며 무조건 백성을 잡아가는 등 끝없는 폭정에 시달렸다. 속설에 뱀이 사람을 무는 것은 사람이 자신을 해치는 것으로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리루이의 『사람의 세상에서 죽다』에서는 뱀 떼가 사람을 공격하고 피질이 창

봉착하면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해서 죽는 편이 더 낫다’는 선택을 하면서 희생양이 만들어지게 되며, 이 희생양은 위기를 극복한 ‘영웅’으로 성스러워진다.

19) 수많은 창조신화 속에서 신성한 공모자들은 자신들 중의 한 명을 ‘모두 함께’ 희생시킨다.……희생제의의 만장일치적이고 집단적인 특징……신화의 여기저기에서 나타는 만장일치의 징후들은 다른 사회의 제의에서도 완전히 동일한 형태로 다시 나타날 수 있다. 르네 지라르, 김진식·박무호 옮김, 『폭력과 성스러움』, 서울, 민음사, 2009, 152-153쪽.

20) 르네 지라르, 김진식·박무호 옮김, 『폭력과 성스러움』, 서울, 민음사, 416쪽. 르네 지라르는 희생양 메커니즘이 이중의 구원자이며, 이 메커니즘은 만장일치를 실현함으로써 모든 차원의 폭력을 침묵시킨다고 했다. 르네 지라르는 신화가 위기 극복을 위해 한 사람을 지목해 희생시키는 집단의 폭력을 감추는 것이고, 만장일치를 실현함으로써 바로 그 집단이 폭력을 행사한데 대한 죄의식까지도 무화(無化)시킨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21) 르네 지라르, 김진식·박무호 옮김, 『폭력과 성스러움』, 서울, 민음사, 378쪽.

꺠하는 등 재앙이 닥쳤다. 예자오온의 『후예』 에서는 하늘에 해 열 개가 나타나 사람이 타죽게 생겼고, 아라이의 『격살이 왕』 에서는 사람을 잡아먹는 요마가 마구 날뛰었다. ‘신화 다시 쓰기’의 소설마다 희생양을 지목하기에 적합한 사회적 환경, 즉 혼돈과 어둠에 빠진 사회적 조건(위기)과 위기 탈출이라는 집단적 공감대가 마련되어 있었다. 이때 선택된 남성 주인공 만기량, 허선, 예, 격살이는 독자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그들은 그들 자신과 마찬가지로 선택되는 여성 조력자가 필요하다. 만기량이 권력자의 폭정을 폭로하기 위해서는 아내 벽노의 ‘눈물’이 필요하고, 허선의 비극에는 아내 백낭자의 자비(慈悲)가 필요하며, 예가 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항아와 교합해야 하고, 격살이가 식인(食人) 요마를 제거하려면 말 달리기 대회에서 우승해서 왕이 되어야 하고 주모를 상으로 받아야 한다.

1) 여성 주인공 조력자의 ‘요건’

르네 지라르는 “희생양 범주에 속한 사람들은 무차별화의 범죄를 당하기 쉬운 부류들”이고,²²⁾ “그 희생양들이 선택된 것은 집단이 비난하는 범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던 희생양의 징후, 즉 그들이 위기에 대해 혐의가 있다는 관련성을 암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물론 각 사회마다 상대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문화를 초월하여 행해지는 희생양 선택의 기준이 있다”고 말했다.²³⁾ 그 기준이란 문화 종교적인 기준 이외에 병, 광기, 선천성 기형, 후천적 불구, 일반적인 불구 등과 같이 비정상(anormal)인 것, 즉 “체제 밖의 차이(difference)”이다.²⁴⁾ 희생양으로 지목되는 인물들, 즉 인간 희생물

22) 르네 지라르, 김진식 옮김, 『희생양』, 서울, 민음사, 2007, 39쪽.

23) 르네 지라르, 김진식 옮김, 『희생양』, 서울, 민음사, 2007, 33, 43쪽.

24) 희생양 징후란 그 체제 안에서 보자면 자기 체제가 갖고 있는 차이와 다를 수 있는 가능성, 달리 말해서 그 결과로 자신의 체제가 모든 것과 다르지 않게 됨으로써 자신

들은 '징후'를 갖고 있다.²⁵⁾ 다시 말하면 비정상적인 것이자 집단과 다른 '차이'는 '신화 다시 쓰기' 소설 속의 남녀 주인공들이 모두 한 가지 이상 갖고 있는 표지들이다.

'신화 다시 쓰기' 열개의 남성 스토리 라인을 보면, 『벽노』의 만기량은 고아이고 가난뱅이이자 새신랑으로 부역장에 끌려가 성벽 아래 깔려 죽었다. 『사람의 세상에서 죽다』의 허선은 그저 평범한 사내로서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여성을 만나는 바람에 뒤틀린 삶을 살게 됐다. 『후예』의 예는 미래의 재앙을 대비해 제준(帝俊) 상제가 내려 보낸 신계(神界)의 사자였으나 세속적인 욕망에 빠진 나머지 팜므 파탈(femme fatale) 현처(玄妻)와 괴롭치한 봉몽(逢蒙)이 휘두르는 몽둥이에 맞아죽었다. 『격살이 왕』의 격살이는 신→인간(왕)→신이란 특이한 영광을 누렸다.

[표] '신화 다시 쓰기' 소설 속 남성 주인공 형상 비교

작품명	이름	전신	가족관계					특징		
			父	母	妻	형제	이들	신분변화	말년	업적
눈물	萬遊梁	뽕나무	-	-	魏奴	-	-	뽕나무 제배→부역자	성벽 아래 묻힘	황제 폭정 폭로
사람의 세상에서 죽다	許宜 -言巨	-	-	-	白娘子 -白素貞	누나	粉孩兒 -言仕麟	서생→의사 →성공한 상인	장님 떠돌이악사	異類 사랑
후예	羿 (后羿)	청룡과 황룡의 알 (조롱박)	-	-	嫦娥 玄妻 小姮	-	-	有娥國 궁수→왕	맞아죽음	해 아홉 개를 쏘
격살이 왕	格薩爾	하늘나라 젊은 신 崔巴覓瓦	森倫	梅榮 嫺輝	12왕비 阿達娜姆 吉尊益喜	이복형 嘉察 協颯	-	교역지 玉 隆格拉松多 건설→嶺國 왕	歸天	석인 요마 제거 강한 嶺國 건설

이 체제로서 존재할 수 없어질지도 모를 그런 가능성이 있다. 르네 지라르, 김진식 옮김, 『희생양』, 서울, 민음사, 2007, 33-34, 39쪽.
 25) 1789년의 프랑스에서 마리 앙투와네트는 왕비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었다.……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는 절름발이이자 업둥이이고 왕이었다. 르네 지라르, 김진식 옮김, 『희생양』, 서울, 민음사, 2007, 37, 45-46쪽.

위의 [표]에서 보면, ‘신화 다시 쓰기’ 소설 속 남성 주인공들이 모두 희생양이 될 표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기이한 전신(만기량, 예, 격살이), 고아(만기량, 예, 허선), 친형제가 없고(만기량, 예, 격살이), 자녀가 없으며(만기량, 예, 격살이), 그리고 비약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뽕나무 재배란 뽕나무가 변해서 된 고아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예는 유릉나라(有戎國)의 내봉이라는 궁수였기 때문에 해를 쏘아 떨어뜨린 수훈으로 왕이 될 수 있었다. 일개 서생이었던 허선은 뱀에 물린 상처에 특효약인 회춘산(回春散)을 만드는 의사가 되었다. 격살이가 링가(嶺曺) 땅에서 추방된 뒤에 위룡거라쑹뒤(玉隆格拉松多)를 교역중심지로 번성시켜 강한 링나라(嶺國) 건설의 발판을 마련하고 뒷날 왕이 되었다. 이들은 모두 위기를 극복할 영웅, 즉 신적인 인물이 될 자격과 조건을 가졌던 것이다.

‘신화 다시 쓰기’ 열개의 여성 스토리 라인을 읽으면, 『눈물』의 벽노는 눈물을 감추지 못해 뽕나무 아홉 그루를 가진 만기량과 결혼한 새신부인데, 남편이 부역에 끌려가는 바람에 온갖 고난을 겪으며 큰체비고개(大燕嶺)로 남편을 찾아간 눈물부인이다. 『사람의 세상에서 죽다』의 백낭자는 2999년 동안의 수련을 거쳐 사람이 되어 허선을 만나 아들을 낳았으나, 아들은 자신의 혈통을 이어받은 뱀인간(蛇人)이었다. 백낭자는 뱀을 잡아먹는 인간의 욕심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자진하는 자비의 화신이었다. 『후예』의 항아 역시 예의 조력자가 될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 항아는 조롱박(청룡과 황룡의 알)에서 태어난 예를 잘 키워서, 그와 교합해 그를 해 아홉 개를 쏘아 떨어뜨릴 영웅 궁수로 만들고, 또 강한 유릉나라를 건설해 후예(왕)로 만든 훌륭한 내조자였으나, 후예의 타락과 몰락을 막지 못하고 시산으로 유폐되며 마지막에는 주취안나라(朱卷國)의 포로가 되었다. 『격살이 왕』의 주모는 격살이가 태어났을 때 이미 혼기에 이른 아가씨였지만, 격살이를 도와 말 달리기 대회에서 우승해 왕이 되게 하고, 또 사

람을 괴롭히고 잡아먹는 요마를 제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지만, 자기 자신은 격살이 왕의 외유 중에 백장왕(白帳王)에게 강제로 시집가 3년을 살면서 아들 한 명을 낳았다. 이들 '신화 다시 쓰기' 소설 속 여성 주인공 형상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신화 다시 쓰기' 소설 속 여성 주인공 형상 비교

작품명	이름	전신	가족관계				신분 변화	말년
			父	母	남편	아들		
눈물	魏奴	조롱박	-	사망	高崑梁	-	大燕嶺 부역현장으로 남편을 찾아가는 눈물부인	성벽 무너뜨림 남편 시신 드러냄
사람의 세상에서 죽다	白娘子 (白素貞)	백사	-	-	許宣	粉孩兒 -言仕麟	아리따운 수예집 주인-許宣 부인	사람들의 요구대로 자진 雷峰塔 아래 묻힘
후예	嫦娥	희생물 미녀	-	(여인 부락장) 尤부인	后羿	-	공주-오강의 7재 부인-后羿 부인-上元夫人-西王母-朱卷魂 포로	달로 감
격살이 왕	珠牡	-	-	-	格薩爾	白帳王之 아들 1	薩羅 오두 만나-薩羅 제1왕비-白帳王 왕비-薩羅 제1왕비	格薩爾와 함께 歸天

위의 [표]에 의하면, '신화 다시 쓰기' 소설 속의 여성 주인공들 역시 희생양으로 지목될 수 있는 많은 표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기이한 전신(벽노, 향아, 백낭자), 고아(벽노, 향아, 백낭자, 주모), 자녀가 없다(벽노, 향아). 또한 이들은 하나 같이 모두 미인이고 맹렬 여성이었다. 이러한 조건들은 그들이 남성 주인공의 배필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 자격이란 '영웅 만들기'에 조력자가 되고, 영웅에 버금가는 영웅이 될 수 있는 요건이다.

첫째, '기이한 전신'과 '고아' 표지는 이들 네 여성 주인공이 비범하게 태어나고 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낼 것임을 암시한다. 이런 어린 시절은 조력자로서의 첫 번째 시련과 고난 시기이다. '미인'과 '맹렬함'은 남성 주인공의 짝이 될 수 있는 주요 표지이며, 조력자로서 겪는 고난의 주요 원인이기도 한다. 여성 주인공들이 가진 남과 다른 '차이'는 조력자이자 희생자로서 위기 해소를 위해 지목될 장치이자

통과의례라고 볼 수 있다.

『눈물』의 벽노는 꽃처럼 곱고, 만기량은 아주 잘생기고 착한 사람이었다.

꽃처럼 어여쁘고 맑고 단아한 그녀는 눈동자가 칠혹처럼 새까맣고 커서 눈물을 달고 살 팔자를 타고난 듯했다.……기량은 아주 잘생기고 선량한 사람이었지만, 훗날이 삼다가 뽕나무 아래서 데려다 키운 고아였다.²⁶⁾

벽노의 전신이 조롱박이었다면, 만기량의 전신은 뽕나무이다.

기량은 자신이 뽕나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삼다가 갖고 있는 뽕나무 아홉 그루를 지키는 열 번째 뽕나무가 되었다. 뽕나무처럼 기량도 말이 없었다. 다른 사람이 말했다. “기량, 이 병어리야,……벽노가 너에게 시집가면 되겠네. 벽노는 조롱박이 변한 아이라니, 조롱박이라면 뽕나무 위에 걸어두기 딱 좋지!” 그래서 벽노는 기량에게 시집을 갔다. 그것은 조롱박의 운명이자 뽕나무의 운명처럼 보였다.²⁷⁾

울음이 금지된 복사골(桃村)에서 오랜 세월동안 눈물과 전쟁을 치러온 탓에 어머니들은 독특한 방식으로 눈물을 배출하는 비법을 찾아냈다. 하지만 벽노에게 어머니의 사망은 그야말로 비극의 전주곡이었다.

26) 碧奴燦爛如花，一張清秀端莊的臉，眼淚注定會積聚在那雙烏黑的大眼睛裏。……豈梁雖然英俊善良，可他是個孤兒，是鰥夫三多從一棵桑樹下撿來的。蘇童，『碧奴』，重慶，重慶出版社，2006，9，10쪽；김은신 옮김，『눈물』，과주，문학동네，2007，30，32쪽.(이하 저자와 쪽수만 표시)

27) 豈梁知道自己是桑樹了，就天天守着三多的九棵桑樹，做了第十棵桑樹。桑樹不說話，豈梁也不說話，別人說，“豈梁你個活啞巴……也只有碧奴肯嫁你了，碧奴是葫蘆變的，葫蘆正好掛在桑樹上!” 所以碧奴嫁給了豈梁，聽起來是葫蘆的命運，也是桑樹的命運。蘇童，10쪽；김은신 옮김，32，33쪽.

벽노의 어머니는 살아생전 딸의 머리를 쓸어 올려 빗겨주며 눈물을 머리카락 속에 감추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어머니가 일찍 죽는 바람에 비법이 완전히 전수되지 않았다.²⁸⁾

벽노의 고향 베이산(北山) 아래 복사골의 풍습은 울면 안 되며, 울 때 울지라도 눈물을 감추어야 한다. 벽노는 눈물을 감추는 비법을 어머니에게서 완전하게 터득하지 못하여, 사람들이 따돌리는 가련한 아이였다.

다른 여자아이들보다 총명하지도 못한데다가 잘 우는 법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그녀는 고아인 만기량에게 시집을 갔다.²⁹⁾

아리따운 벽노와 잘생긴 만기량은 천생연분이긴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모두 ‘결핍’을 갖고 있다. 조롱박-뽕나무, 고아-업둥이, 예쁘다-잘생기다, 단아-선량, 눈물을 감추는 법을 모르고-병어리처럼 말이 없다.

어메이산(峨眉山)에 너무도 사람이 되고 싶었던 백사가 있었다. 하얀구름동굴(白雲洞)에서 3천 년 수련에 몰두했던 백사가 2999년에 단 한 번의 선행으로 수련을 끝내고 말았다.³⁰⁾ 백사의 3천 년 수련은 그야말로 고행이었다.

처음 천 년 동안에는 명상 속에서 인간의 육신을 갖기를 꿈꿨다. 그리하여 천 년이 지나자 인간의 육체와 꽃 같은 미모를 얻었다.

28) 她母親活着的時候給女兒梳了個雙鳳鬢，教她把眼淚藏在頭髮裏。可是母親死得早，傳授的秘方也就半途而廢。蘇童，9쪽; 김은신 옮김, 30쪽.

29) 她不如別的女孩聰明，也就學不會更聰明的哭泣方法，……只有碧奴嫁了孤兒豈梁。蘇童，9-10쪽; 김은신 옮김, 31-32쪽.

30) 這白蛇生在峨眉山，年深日久，有了覺悟，幻想做一個人。……就這樣，她三千年的修行，終止在二千九百九十九年的一桩善學之上。李銳，『人間』，重慶，重慶出版社，2007，13-15쪽; 김택규 옮김，『사람의 세상에서 죽다』，서울，詩作，2010，33-35쪽.(이하 저자와 쪽수만 표시)

그리고 다음 천 년 동안에는 인간의 머리를 갖기를 꿈꿔, 결국 인간의 머리와 지혜를 얻었다. 마지막 천 년 동안 갖고자 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었다. 이것이 가장 얻기 어려웠고, 동시에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관건이었다.³¹⁾

백낭자는 백사였고, 꽃 같은 미모를 가진 여자로 변해 사람의 세상에 왔다.

그날 허선이라는 이름의 잘생긴 남자가 교외에 성묘를 하러 갔다가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 호숫가에 배를 댔다. 그는 거기에서 담청을 마치고 배를 기다리던 두 자매와 마주쳤다. 자매 중 언니는 백소정이라는 젊은 과부였고, 천진난만한 동생은 청이라고 했다.³²⁾

백낭자와 허선은 백사-사람, 고아-고아, 예쁘다-잘생기다, 젊은 과부-서생 등의 짝이 될 요소를 가졌던 것이다.

항아의 전신은 제물로 바쳐진 예쁜 소녀였다.

상제는 미녀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호색한도 아닌데 왜 인간들이 매번 아름다운 소녀들을 희생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제준 상제는 용의 알을 내려 보내면서 희생물로 바쳐진 미녀 가운데 한 명을 같이 보냈다. 그녀가 바로 항아의 전신이다.³³⁾

31) 於是，一千年過去了，它有了一個人的身體和花容月貌。第二個千年，它冥想：給我一個人的頭腦。於是，二千年之後，它有了人的頭腦和智慧。到第三個千年，它冥想：給我一顆人的心。這是最難獲得的，也是成功與否的關鍵。李銳，14쪽；김택규 옮김，33쪽.

32) 這一天，那個名叫許宣或是許仙的美男子，去郊外掃墓，乘舟歸來，忽遇驟雨，停船靠岸，遇上兩個踏青歸來想搭順船的姐妹。姐姐是個青春寡居的美少婦，姓白，名素貞；妹妹喚做小青，天真爛漫。李銳，23쪽；김택규 옮김，48-49쪽.

33) 老天爺對美女并不感興趣，他說：“我又不好色，幹嗎老是要來這一套呢？”帝俊將龍蛋和其中的一位美女扔向了人間，這美女便是嫦娥的前身。葉兆言，《『后羿』》，武漢，長江文藝出版社，2011，302쪽；김은신 옮김，《『후예』》，과주，문학동네，2014，397쪽.(이하 저자와 쪽수만 표시)

항아는 상제가 사람의 세상으로 돌려보낼 때, 여인부락장 우(尤)부인의 딸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여인부락의 용감무쌍한 족장이었다.³⁴⁾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항아는 극진히 사랑 받는 공주였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해에 항아는 겨우 아홉 살이었고,³⁵⁾ 사내 무사처럼 용감했던 우부인의 보호를 잃은 항아의 처지는 그야말로 오갈 데 없는 미운 오리 새끼였다.³⁶⁾ 항아가 열두 살 때에 여인부락이 망하고, 항아는 유훈나라에서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어 가질 때에 별 볼일 없는 절름발이 칼잡이인 오강(吳剛)³⁷⁾에게 선택되어 그의 일곱째 여자가 된다.

항아와 예는 희생 제물-용의 알, 고아-고아, 포로-거세당했다, 예쁘다-활을 잘 쏜다 등의 짝이 될 조건을 갖추었고, 특히 이 두 사람은 희생양이 될 운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격살이 왕』의 전편에서 주모의 내력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고 단지 '링가의 가장 아름다운 미녀 12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 미녀'로 통한다. 이는 하늘에서 사명을 부여할 때, 사람의 세상에서 격살이를 태어나게 할 부모를 고르고 골라서 아버지 삼륜(森倫)과 어머니 매타나택(梅朶娜澤)을 선택하면서 그들의 혈통에 대해 미주알고주알 밝힌 것과는 전혀 판판이다.

지역의 풍수는 척 보면 알 수 있다. 하늘나라이건 사람의 세상이건 간에 뼈대 있는 가족과 공덕을 쌓은 부모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그리하여 모든 인연이 무르익었다. 신의 아들 최과갈와는 하늘에서의 수명을 갈무리하고 고난이 가득한 사람의 세상으

34) 尤夫人是嫦娥的生母, 她是個十分能幹的首領, 在她的帶領下, 部落一度非常強大。葉兆言, 12쪽; 김은신 옮김, 11쪽.

35) 尤夫人死的那一年, 嫦娥只有九歲。葉兆言, 12쪽; 김은신 옮김, 11쪽.

36) 沒有了英勇驍戰的尤夫人保護, 嫦娥的地位一落千丈。葉兆言, 12쪽; 김은신 옮김, 11쪽.

37) 항아의 첫 번째 남편 오강이 절름발이(불구)라는 것, 작은 재주꾼(칼잡이)라는 것, 그가 권력의 힘에 밀려 예를 거세하는 것(가해) 등이 뒷날 그도 희생될 것임을 암시한다.

로 내려갈 준비를 마쳤다.³⁸⁾

주모는 링가 출신의 여성이라는 점에서 보면 드러나는 차이가 없지만, 그 고장에서 빼어나게 아름답다는 점은 그가 조력가가 될 표지라고 할 수 있다.

말 달리기 시험을 벌여 여기에서 승리한 이를 국왕으로 삼고, 승리는 링가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 삼강주모를 얻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금, 은, 유리, 거거, 마노, 진주, 소라 등 각종 보물을 얻을 것이다.³⁹⁾

주모는 왕을 정하는 말 달리기 대회의 최고 상품이였다. 이는 집단이 영웅의 조력자를 선택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이들 네 여성 주인공에게 모두 어머니가 ‘없다’는 점도 이들이 고난의 길을 걷게 될 것을 암시해주는 표지이다. 벽노와 향아는 어머니가 사망해서 어머니가 ‘부재’한 경우이고, 백낭자의 어머니는 뱀이었을 것이며, 주모의 내력은 일체 알 수 없다. 이 네 여성은 모두 결혼했지만, 정상적인 아기를 갖지 못했다. 벽노는 만기량이 부역장에 끌려갔기 때문에 아기를 가질 수 없었다. 향아는 예와 교합하고, 그의 아내가 되었지만, 예가 사람이 아니라 신이었고, 또 거세당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었다. 백낭자는 허선과 결혼해 아들을 낳았으나, 이 아들은 정상적인 사람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모는 격살이 왕의 제1왕비로서 자녀를 낳지 못했지만, 백장왕과의 사이에서 사생아를 낳게 된다. 백낭자의 아들 분해아(粉孩兒)나 주모의

38) 地方的風水一目可見。而無論在天界還是凡間，一個有來歷的家族與有功德的父母才是最重要的。……於是，一切機緣成熟，神子崔巴噶瓦便自動結束了在天界的壽命，準備降臨到苦難的人間。阿來，30，39-40쪽; 문현선 옮김, 72-73, 92쪽.

39) 要嶺部落舉行賽馬大會，得勝者將成爲國王，得勝者還將得到嶺嘴最美麗的姑娘森姜珠牡，以及金、銀、琉璃、碑磬、瑪瑙、珍珠和海螺等諸種珍寶。阿來，104쪽; 문현선 옮김, 225쪽.

아들이나 모두 정상적인 자녀라고 볼 수 없으므로, 네 여성 주인공은 모두 정상적인 어머니가 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셋째, 이들 네 여성 주인공은 모두 '맹렬' 여성이었다. 『눈물』의 벽노가 온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과 악담에도 흔들림 없이 만리장성을 쌓는 큰제비고개로 남편에게 겨울옷을 주기 위해 떠나는 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강한 의지를 지닌 맹렬 여성인지를 알 수 있다. 『사람의 세상에서 죽다』의 허선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지만, 그날 항저우 시 후에서 내린 비는 기상이변이 아니었고 청아(靑兒)가 도술을 부린 것이다.

그날의 소나기는 한 아름다운 사건을, 인간 세상의 한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었다. 꼬마 요괴는 뒤에서 슬그머니 웃었다. 허선의 배를 멈추게 한 그 소나기가 그녀의 회심의 작품이었다는 건 굳이 말할 필요 없을 것이다. 그녀는 언니의 눈에서 적막한 여인의 흠모와 사랑의 뜻을 읽고, 바로 언니 앞에서 구름과 비를 일으켰다.……모순과 갈망에 가득 찬 백소정의 목인이 있었던 것이다.⁴⁰⁾

백낭자(백사)와 허선(사람)이 첫눈에 반한 것에서 보면, 그들은 희생될 운명이었다. 『후예』의 항아는 미인계를 써서 조부(造父)에게서는 좋은 활과 화살을 얻고, 또 당대 제일의 궁수이자 교관인 포(布) 선생을 예의 개인교사로 만든다.

조부는 예가 장차 포 선생보다 더 위대한 궁수가 될 거라고 예언했다.……유릉나라에서 조부만큼 좋은 활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그는 활을 손에 쥐고 팽팽하게 당겨진 시위를 울려

40) 那一場驟雨，成就了一樁好事，一樁人間的好姻緣。小蛇妖暗自竊笑，那逼迫小舟停船靠岸的驟雨，不用說是她的得意之作：她從姐姐眼中看出了一個寂寞女人內心的傾慕和愛意。她當着姐姐的面玩起了翻雲覆雨的把戲。……那其實是白素貞一個充滿矛盾和渴望的默許。李銳，23쪽； 김택규 옮김，49쪽.

항아에게 청명한 소리를 들려준 뒤 그녀를 커다란 작업대 위에
눅히고 마음껏 취했다.

유룡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궁수는 포 선생이었다.……예에게 훌륭한 스승을 구해주기 위해 그녀는 어떤 일이든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항아는 조부에게 그랬던 것처럼 포 선생에게도 자신을 허락해야 했다.⁴¹⁾

주모는 왕을 선택할 수 없지만 왕비가 될 수 있는 표지를 갖고 있었다. 게다가 주모는 격살이(아명 覺如)에게 말 달리기 대회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 직접 나서서 격살이에게 달려갈 정도로 맹렬 여성이다.

그녀 자신이 이번 말 달리기 시험의 중요한 상이었다.……주모가 말에 올라 떠나려 할 때, 등 뒤에 있던 사람들이 악의 없이 농담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새로운 일은 정말 언제나 끊임없이 나타나는데. 아름다운 아가씨가 미래의 신랑을 찾으러 가는 일은 또 처음 보는군 그래!”⁴²⁾

주모는 왕비가 되고 싶지 않아도 왕비가 될 운명이었다. 그는 이미 ‘왕의 여자’로 지목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주모는 격살이를 왕으로 앉히기 위해 직접 말을 달려 격살이에게 간 것이다.

41) 造父預言羿會成爲一個比布更偉大的弓手。……因爲在有戎國，除了造父，沒人會製作良弓。……他將弓拿在手上，對她撥弄了幾下緊繃着的弓弦，然後就在悅耳的弦聲中，將嫦娥順勢推倒在了那張碩大的工作臺上，很輕易地占了她一回便宜。有戎國最偉大的射手應該是布。……爲了讓羿成爲一名真正的偉大射手，嫦娥樂意爲他做任何事情。……他的條件是嫦娥必須像滿足造父那樣，讓他也占一回便宜。葉兆言，102-108쪽; 김은신 옮김, 133-143쪽.

42) 她本人就是本次賽馬重要的彩注。……珠牡上馬出發時，她還聽見了身後人們善意的玩笑：“新鮮事真是層出不窮，第一次看見漂亮姑娘去接將來的新郎!” 阿來，111쪽; 문현선 옮김, 239-240쪽.

2) 여성 주인공 조력자의 ‘시련’

한국 사람이라면 너나없이 알고 있는 이몽룡과 성춘향의 사랑 이야기는 신데렐라 이야기에 비하면 획기적이지도 환상적이지도 못하다. 성춘향은 왕비가 된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마님이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몽룡-성춘향이 한국 사람의 눈물샘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생명력을 가진 이유는 성춘향의 시련이 주는 감동에 있다고 여겨진다. 이 이야기가 생산된 시기에 사람들은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된 것 말고는 아마 온전한 사내라고 여기지 않았을 것 같다. 아무튼 이몽룡의 순애보보다는 성춘향의 고난 대목이 훨씬 더 ‘이야기’의 매력을 갖고 많은 카타르시스를 제공한다. 성춘향의 고난 없이 양반집 도령 이몽룡의 순정이 빛을 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화 다시 쓰기’ 소설 속의 주인공들은 천부적으로 초능력을 갖고 태어났고, 영웅이 될 조건을 태생적으로 가졌다. 그렇지만 그들이 진정한 영웅이 되려면 성춘향이나 어우양화와 같은 ‘조력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성춘향과 어우양화는 수동적인 ‘가련형’ 조력자이다. 성춘향은 사또 변학도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떠나지 못하고 옥에 갇힌 채로 이몽룡이 와서 구해주기만을 기다리는 수난자라면, 어우양화는 숨은, 가려진, 폭로되는 수난자이다.

‘신화 다시 쓰기’ 소설 속의 여성 주인공 벽노, 백낭자, 향아, 주모는 모두 ‘고향’을 떠나면서 고난을 겪는다. 고향을 떠나는 길부터가 고난의 여정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고향 역시 시련의 장이었고 수난(희생)을 은폐한 공간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들이 겪은 시련마다 영웅의 조력자가 되는 시험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벽노의 고향 복사골은 지극히 부조리하고 기형적이며 폐쇄된 공간이었다. 그곳은 황제의 숙부인 신도군(信桃君)의 유배지였다.

……신도군이 황제에 의해 베이산으로 유배된 것과 그의 등에 황제가 직접 죽음을 명한 금색 낙인이 찍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황제는 신도군에게 대항에 죽을 것을 명했지만 신도군은 자신의 사형 날을 연기하여 청명절이 되어서야 초가집 대들보에 흰색 비단을 걸고 목매달아 죽었다.⁴³⁾

신도군은 권력다툼에서 밀려난 패배자이면서, 유배지에서 황제의 명을 어기고 멋대로 길일을 택해 죽었다. 그는 죽는 날까지 황제에게 저항한 인물이다. 그래서 ‘황제가 신도군을 위해 통곡하지 못하도록 한 법령’이 복사골에 미처 이르기 전에 지방 벼슬아치들이 먼저 알아채고 통곡자 300명을 적발해 생매장시켜서 화근을 아예 없애버렸다. 그로부터 이들 통곡자의 후손은 눈물의 ‘금기’를 갖게 되었다. 눈물이란 사람이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 절로 흘리는 것이다. 이런 생리적 현상인 눈물마저도 통제당해 금지해야 하는 복사골은 ‘쇠로 만든 집(鐵屋)’⁴⁴⁾과 다름없었다.

베이산 아래 사람들은 지금도 울음이 금지되어 있다.⁴⁵⁾

복사골에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기상천외하게 눈물을 감추는 비법이 전수되고 있었다. 사람이 눈물을 절로 흘리지 못할 때, 나아가서 눈물의 카타르시스를 누리지 못할 때, 바로 복사골 사람들처럼 가없이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고 인정이 메마르고 욕하고 비웃고 거칠고 사나워지는 것이다.

43) ……信桃君是被國王放逐到北山的，他的後背上刺了國王的賜死金印，國王讓他死於大寒，可信桃軍拖延了自己的死期，直到清明那天才把白絹掛到了草廬的房梁上。蘇童，3쪽；김은신 옮김，14쪽.

44) 假如一間鐵屋子，是絕無窓戶而萬難破毀的，裏面有許多熟睡的人們，不久都要悶死了，然而從昏睡人死滅，並不感到就死的悲哀。魯迅，「吶喊·自序」，『魯迅小說全集』，武漢，長江文藝出版社，2005，7쪽.

45) 北山下的人們至今不能哭泣。蘇童，6쪽；김은신 옮김，22쪽.

고향은 진작 안전한 보호와 따뜻한 위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벽노는 고향을 떠나 길 위에서의 차례차례 이어지는 고난을 택한다. 벽노의 마음의 고향은 만기량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의적인 수난자의 길을 걷는 것이다. 하지만 벽노가 복사골에서 큰제비고개까지 가는 길에 경험한 마을들 역시 고향과 다를 바 없는 곳들이었다. 황제의 친형제 형명군(衡明君)의 영지인 인간시장 파란풀개울(藍草澗), 사슴인간과 말인간을 양성하는 온갖봄날둔덕(百春臺), 양상군자 근소(芹素)의 주검을 실은 운구마차에 올어줄 부인으로 팔린 푸른구름개울(靑雲關), 전염병이 도는 맑은숲역(芳林驛), 동네사람인 근소의 시신을 받아주지 않는 일곱리동굴마을(七里洞), 눈물탕약을 만드는 다섯곡식시내(五谷城) 등 벽노의 발걸음이 닿은 고장마다 예외 없이 복사골의 복사판이었다.

인자한 품성을 지닌 형명군은 사냥으로 사람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았다. 형명군은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러 느릅나무 사냥용 화살촉을 만들어 사용했을 뿐 아니라 활을 쏠 때에도 엉덩이를 맞추도록 요구했다. 따라서 엉덩이를 맞추면 활 숨씨가 뛰어난 걸로 인정받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활 숨씨가 형편없다고 여겨지곤 했다.⁴⁶⁾

형명군은 왕공귀족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문객 300명을 들이고 온 세상의 기인과 보물을 수집하며, 말 사육을 금지한 시기에도 특권을 이용해 준마 세 필을 소유할 수 있었고, 사냥을 할 수 없게 되자 굶주린 아이들을 데려다 화살받이 사슴인간이나 말인간으로 사육해서 산에 풀어놓고 사냥놀이를 했다. 그럼에도 인명을 귀히 여기는 인자한 품성의 소유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46) 他們都知道衡明君的仁慈，他不喜歡射出人命，爲了孩子的安全考慮，他讓人製造了專用的榆木箭，而且他對自己的箭法也提出了苛刻要求，射到孩子們的屁股，才是他認可的好箭，不則就是他說的臭箭。蘇童，100쪽；김은신 옮김，281쪽.

벽노가 찾아가는 만리장성이 아무리 인류의 위대한 유산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감출 수 없는 폭력의 증거이고 엄연한 권력자의 박해의 산물이며 역대 봉건 왕조의 폭정의 상징체이다. 그것은 희생자의 뉘과 통곡으로 얼룩진 성벽이다. 큰제비고개는 일단 끌려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는 철옹성이기에 불쌍한 백성 만기량의 백골도 돌벽 아래 영원히 파묻혀(간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어떤 백사가 고향을 떠나 사람의 세상으로 왔다. 그것은 2999년이 걸린 긴 여행길이었다. 신의 세계에서 사람의 세상 항저우(杭州)로 온 것이다.

이 백사는 어메이산에서 태어나 오랜 세월 끝에 깨달음을 얻어 인간이 되기를 꿈꿨다. 어떻게 수련해야 인간이 될 수 있는지, 백사는 곳곳을 다니며 가르침을 구했다.……2999년 동안 못 본 파란 하늘, 흰 구름 아래 서 있는 백사는 빨간 입술과 하얀 치아를 가진 아리따운 미녀였다.⁴⁷⁾

백낭자는 오로지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기에 그 길고긴 고행의 시간을 참고 견뎌냈다. 그 까마득한 세월에 비하면 한바탕 꿈같은 연극 같은 ‘사람’으로서의 짧은 삶은 그가 뱀이었을 때에 품었던 동경을 한껏 즐기게 했고, 그 단련의 고통을 충분히 보상하고 완전히 잊게 해줄 듯 달콤했다. 어느 날, 제요인(퇴마사) 법해를 만난 것은 백낭자의 첫 번째 고난이다. 뱀인 본색이 드러나자 놀라 혼절한 허선을 살리기 위해 환혼초(還魂草)를 구해 온 것도 사랑을 잃지 않으려는 목적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더욱이 그는 홀몸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법해를 피해 벽도나무마을(碧桃村)로 도망쳤다.

47) 這白蛇生在峨眉山，年深日久，有了覺悟，幻想做一個人。它到處請教可有什麼方法能够修煉成人。……她站在睽達了二千九百九十九年的藍天白雲之下，脣紅齒白，分外妖嬈艷麗。李銳，13-15쪽; 김택규 옮김, 32-35쪽.

남쪽 지방, 거의 육지 끝에 자리한 산들 사이에 아주 작은 마을이 있었다. 그곳에서 밭농사를 짓고, 뽕감을 채집하며 살아가는 10여 가구는 전부 귀양 온 죄인들의 후손이었다. 그 마을은 원래 이름이 없었지만, 언제부터인가 ‘벽도나무마을’이라 불리기 시작했다.……그해, 한 가족이 무슨 연유인지 벽도나무마을로 흘러 들어왔다.……이 가족은 이 지역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말을 썼으니 아무래도 꽤 먼 곳에서 온 것 같았다. 하지만 죄인의 후손인 마을 사람들은 남의 내력을 캐지 않는 게 습관이 돼 있었다. 기껏해야 화를 피해 도망쳐 왔을 텐데, 뭐 그리 수상한 게 있겠는가?⁴⁸⁾

백낭자의 두 번째 고난은 아들 분해야를 낳고부터이다. 아니 그 이전에 가을이 되어, 사람들이 뱀을 잡아먹으면서부터 재앙은 서서히 드리워졌다. 사람들이 뱀에게 물리면서, 뱀 떼가 사람을 공격하면서, 뱀 떼가 ‘사람’의 무리 속에서 자신의 동류(同類)를 발견하고, 사람들이 자신들 가운데서 이류(異類)를 발견하면서, 이 모든 재앙은 파멸로 막을 내릴 것이었다.

분해야가 언제 집에서 기어 나왔는지 아무도 눈여겨본 사람이 없었다.……피리 소리가 그 애를 매료시키고 유인했다. 그 애는 혼이 빠져 다급히 마당을 벗어나 막 혈투가 끝난 전장까지 기어왔다. 사람들이 눈을 돌렸을 때, 그 애는 풀밭 위에서 정신없이 즐겁게 목을 내밀고 온몸을 비틀면서 작고 빨간 혀바닥을 날름거리고 있었다.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와 너무나 흡사했다.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져 말을 잃었다. 부인은 자기 몸속에서 친지가 무너지는 듯한 굉음을 들었다.⁴⁹⁾

48) 在南方，幾近陸地盡頭的群山之中，有一個小小村落，十多戶人家，以耕樵爲業，俱是被流配的墮民(罪人)的後代。村莊從前并無名字，後來，不知從何時起，人們開始叫它“碧桃村”。……這一年，有一家人家，不知何故流落到了這碧桃村。……這家人說着此地人聽不懂的言語，想來他們的來處也不會近。墮民的子孫習慣了，從不問人來處：左右不過是爲避禍而來罷了，有什麼可蹊蹺的？李銳，67-68쪽；김택규 옮김，135-136쪽.

49) 誰也沒有注意，粉孩兒是何時從家裏爬出來的，……笛聲吸引了這孩子，引誘了這孩子，他急切地、陶醉地爬出了院子，來到剛剛酣戰過後的戰場。當人們看到他的時候，他快樂地、迷狂地探着小脖子，身體在草地上扭動、舞蹈，紅紅的小舌頭一探、一探，像極了另

분해하는 피를 좋아하는 ‘살생’ 본능을 가진 뱀인간이었다. 이질적인 존재로 밝혀지면서, 괴질이 돌면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면서, 백낭자는 인간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때에 이르게 된다.

너는 끝내 인간의 잔인함을 수련하지 못했으니 장차 인간 세상에서 온갖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세상에 인간보다 다른 존재를 용인하지 못하는 생명은 없다. 하지만 너는 뱀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다. 어쨌든 너는 이미 인간의 색정을 지닌 육신을 받았기 때문이다. 백사녀야, 고해는 끝이 없음을 두고두고 명심해야 한다.⁵⁰⁾

백낭자의 고난은 수련의 마지막 1년을 채우지 못한 것에서부터 잉태되었고, 이미 예정된 것이었지만,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다. 백사가 채우지 못한 1년은 판도라의 상자처럼 희망을 담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 비겁함, 교활함, 잔인함, 배타성, 폭력성 같은 이기적인 것들을 담았을 것이다.

항아는 전생에서든 이승에서든 후생에서든 모두 시련을 겪게 될 운명을 가진 여성 주인공이다. 그는 인간을 위한 희생물로서, 예의 조력자로서 예와 더불어 희생되어야 할 운명이었다. 항아에게 어머니가 ‘부재’한 고향은 거대한 ‘결핍’의 공간이다. 항아는 공주였지만 망한 나라의 포로로 남의 나라에 끌려왔다. 이는 항아가 이승에서 고향을 떠나 처음으로 타지에 간 것인데, 항아의 첫 번째 여행이라고 할 수 있다. 항아가 오강의 일곱째 여자가 되어 살게 된 거처는 처음에는 여섯째 여자인 모(毛) 씨와 함께, 뒤에는 오강의 딸들과 함께, 그 다음

一種生命和生靈。人們目瞪口呆。娘子聽到了自己身體中天崩地裂坍塌的巨響。李銳，109쪽; 김택규 옮김, 214쪽.

50) 你最終沒能修煉出人心的殘忍，在人間，你將備受折磨，沒有什麼生靈比人更不能容忍異流的。可你也不能再做回一條蛇，因你畢竟已有了一具人的情色之身。白蛇女，苦海無邊，你要三思啊。李銳，15쪽; 김택규 옮김, 34-35쪽.

에는 돼지우리에서, 예가 조롱박에서 태어난 다음에는 움막에서 살았다. 예가 사람들을 해의 재앙에서 구해준 뒤에 왕-후예로 즉위한 다음에야 반듯한 궁궐에 들어가 살게 된다.

항아의 두 번째 여행은 후예를 따라 유릉나라의 영지인 여인나라(女人國), 난쟁이나라(小人國), 하양백성나라(白民國), 검정치아나라(黑齒國), 거인나라(大人國), 벌거숭이나라(裸身國), 마지막으로 웨정나라(樂正國)로 순방한 것이다.⁵¹⁾ 후예 일행은 이 여정에서 세상을 구경하고 견문을 넓히지만, 후예, 항아, 말희(末嬉) 등 세 사람은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 될 놀이를 했다.

항아가 첫 번째 문을 열어 후예를 신의 신분에서 인간으로 변화시켜 이성 간의 사랑과 남녀 간의 정사에 눈을 뜨게 하고 일부일처제의 원칙을 잘 따르는 사내대장부로 변화시켰다면, 말희는 후예의 몸에 남아 있던 신의 기운을 말끔히 지워버리는 두 번째 문을 열었던 것이다. 후예는 금새 여색을 밝히고 쾌락을 쫓는 남자로 타락해버렸다.⁵²⁾

그리고 마지막에 들린 웨정나라에서 복수의 화신 현처를 본 순간부터 후예는 더더욱 이성을 잃고 파국으로 치닫는다.

항아의 여행의 클라이맥스는 세 번째이다. 후예의 과멸적인 사랑과 현처의 '남편 기(夔)와 아들 백봉(伯封)에 대한 복수'로 불타는 미움이 유릉나라의 존립 자체를 뒤흔들었다. 현처의 질투의 결과이자 치밀한 계획 아래 권력투쟁에서 밀리고 후예의 사랑을 잃은 항아는 상원부인(上元夫人)의 직위까지도 박탈당하고 시산(西山)으로 쫓겨난다.⁵³⁾ 그

51) 葉兆言, 203-215쪽; 김은신 옮김, 269-288쪽.

52) 如果說, 嫦娥爲后羿打開的第一道門, 只是讓他從神變成一個人, 讓他第一次面對活生生的異性世界, 讓他洞悉了男女私情, 讓他變成一個遵循一夫一妻規則的男子漢, 那麼末喜則是打開了第二道門, 這道門一開, 后羿身上殘存的那些神的光環, 從此不復存在。后羿開始墮落了, 他立刻墮落成一個真正的男人, 墮落成一個好色和喜歡淫亂的男人。葉兆言, 218쪽; 김은신 옮김, 290-291쪽.

리고 몰락의 길을 걷는 유통나라에 도전한 주취안나라의 인질이 된 항아가 마지막으로 후예를 찾아온다. 항아가 선단을 먹고 하늘나라로 돌아갈 것을 권하였을 때, 후예는 한 알뿐인 선단을 사랑의 이름으로 기꺼이 항아에게 양보한다.

주모는 링가의 으뜸가는 미녀이기 때문에 격살이의 조력자로서 고난을 겪을 운명이었다. 주모는 고향 링가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외지에 간 경험이 세 번 있다. 첫 번째는 추방당한 각여(격살이)에게 말 달리기 대회 개최 소식을 알려주러 갈 때이고, 두 번째는 백장왕에게 시집갔을 때이며, 세 번째는 격살이 왕을 따라 하늘나라로 갈 때이다.

‘세상에서 가장 용맹스럽게 적을 제압하는 보배 격살이’⁵⁴⁾가 말 달리기 대회에 참가하고 우승해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모가 그를 찾아 먼 길을 달려갔기 때문이다. 이 길에서 주모는 두 차례 시험을 거친다.

주모가 허허벌판을 지나고 있는데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검은 구름으로 뒤덮이더니 검은 말을 타고 검은 창을 든 사람이 안개 속에서 나타났다. 시키면 얼굴에, 눈은 통방울 같았다.……주모는 망설이지 않고 금가락지를 빼서 그에게 주었다.……이제껏 이토록 빼어난 외모에 기품 있는 남자를 본 적이 없었다! 피부는 구릿빛으로 반짝였고, 칠혹같이 검은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보였다.……왕자는 수정 팔찌를 주모의 손목에 끼워주었다. 주모는 흰 실로 매듭을 아홉 개 지어 왕자의 허리에 매어주고, 말 달리기 시험에서 만날 것을 약속한 뒤 아쉬워하며 그와 헤어졌다.⁵⁵⁾

53) 嫦娥於是怏怏不樂地離開了後宮，出發去西山。葉兆言，275-281쪽; 김은신 옮김, 364-374쪽.

54) 世界英豪制敵寶珠格薩爾。阿來，33쪽; 문현선 옮김, 79쪽.

55) 這天行地一片荒涼的曠野，清朗的天空突然被烏雲遮掩。一騎黑人黑馬，手持黑色長矛從陰霾中顯現。這人面如黑炭，目似銅鈴。……珠牡毫不猶豫就取下一隻金指環給他。……她從未見過一個男子像這般美貌，神態是如此富貴安閑！他的皮膚閃爍青銅的光芒，……漆黑的雙眸猶如深潭！……王子把一隻水晶鐲子戴在她手上。珠牡把白絲帶打了九個結拴在王子腰上，約好在賽馬大會上相見，這才依依不捨地分了手。阿來，111-113쪽; 문현

주모는 격살이를 찾아가는 동안에 통행세를 내라며 길을 막는 자와 잘생긴 인도왕자를 만났다. 처음에는 슬기롭게 금가락지를 빼주고 위기를 면했고, 두 번째는 인도왕자의 잘생긴 외모에 반해 서로 약속의 증표를 주고받은 다음에 아쉬워하며 헤어졌다. 이 두 사람은 모두 격살이가 변한 것이었지만, 주모는 알 턱이 없었다. 격살이는 우승해 왕이 되었고, 주모는 제1왕비가 되었다.

사람에게는 생로병사가 있고 희로애락이 있고 흥망성쇠가 있기 마련이다. 제2왕비 매살(梅薩)을 납치해간 야얼칸(亞爾康)의 마왕 노찬(魯贊)을 징벌하러 떠난 격살이가 그곳에서 마왕의 동생 아달나모(阿達娜姆)의 도움을 받아 마왕 노찬을 죽이고, 링나라로 돌아오려 할 때, 매살과 아달나모가 권하는 요마나라의 술을 마시고는 고향 기억을 잃고 말았다. 그렇게 주저앉기를 3년을 보낼 때에, 동북쪽에 있는 휘얼나라(霍爾國)의 백장왕이 총애하던 한비(漢妃)를 잃은 뒤에 주모를 왕비로 얻고 싶어 링나라에 대고 선전포고했다.

링나라의 변경까지 군대를 이끌어난 백장왕이 사신을 보내 주모를 아내로 맞겠다고 뜻을 밝혔다.⁵⁶⁾

주모는 링나라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백장왕의 왕비가 된다. 또 1년이 지난 뒤에 정신을 차린 격살이는 먼저 휘얼나라로 달려가서 휘얼나라 친왕의 공주 길존익희(吉尊益喜)와 장수 신파맥여택(辛巴麥汝澤)의 도움을 얻어 백장왕을 죽이고, 그의 두 형제인 황장왕(黃帳王)과 흑장왕(黑帳王)도 죽였다. 길존익희는 격살이의 제14왕비가 되었다. 격살이는 이때 백장왕과 주모 사이에 태어난 아기의 목숨도 단칼에 빼앗았다.

선 읍김, 240-244쪽.

56) 這此, 白帳王已經陳大軍於嶺國邊境, 派出信使, 指明要迎娶珠牡。阿來, 164쪽; 문현선 읍김, 353쪽.

대왕이시여, 그 죄 없는 어린 것은 백장왕의 혈육이기도 하지만,
계제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였습니다!⁵⁷⁾

격살이 왕은 많은 왕비를 거느렸지만 후예와 항아 부부처럼 자녀를 낳지는 못했다.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기는 허선과 백낭자의 아들 분해아처럼 신의 세계나 사람의 세상 양쪽에서 모두 이질적인 존재로서, 이류로 취급받게 될 것이다. 그도 역시 ‘신화 다시 쓰기’ 소설 속의 인물들처럼 영웅-희생양 아니면 조력자-수난자가 될 운명이 될 확률이 높을 것이다.

3) 여성 주인공 조력자의 ‘희생’

‘신화 다시 쓰기’ 소설 네 편에서 비천한 신분이기 때문에 조력자로 선택되고 고난을 통해 조력자로서의 임무를 완성하면서 고귀하게 높여지는 것은 모든 여성 주인공 조력자의 공식이라고 할 수 있다.

‘신화 다시 쓰기’ 소설 속의 여성 주인공들은 모두 비천한 출신이다. 땅에 뿌리를 내린 조롱박이 변해 태어난 고운 여자아이에게 쭈통이 맹강녀에게 마르지 않는 샘인 눈물과 ‘벽노’라는 이름을 부여한 것,⁵⁸⁾ 희생물로 바쳐졌다가 또 다시 희생물로 지목되는 예쁜 소녀 항아, 신선이 되기를 포기한 백사이자 사람 세상의 어여쁜 부인 백낭자,

57) 大王, 那無辜的孩子雖然是白帳王的骨血, 那也是我的心頭肉啊! 阿來, 177쪽; 문현선 옮김, 381쪽.

58) ‘碧奴’는 여성화된 이름이며, 소설에서 쓴 것이 여성임을 암시한다. ‘碧’은 청록색이고 왕성한 생명을 상징하며, 생명의 원시적인 색채이다. 그것은 생명을 낳아 기르는 대지와 대지의 거친 숨결이 숨 쉬고 만물을 양육하는 정신이다. ‘碧’은 소설의 주요 미학 색채이며, 소설의 많은 장소에서 ‘碧’의 색채를 활용했다. ‘奴’의 ‘又’는 고대 중국어에서 ‘手’와 같고, ‘奴’자의 뜻은 ‘한 손으로 여인을 땅에 눌러 자빠뜨린다’는 뜻이다. 趙彬·蘇克軍, 「名字背後的隱喻和象徵—對蘇童新作『碧奴』題名的素解」, 『名作欣賞』, 제6기, 2007, 66-67, 75쪽.

내력이 없으나 령가 제일의 미녀 주모는 모두 비천한 신분이다. 이 여성 주인공들은 모두 운명적인 신분적인 한계 (이질적 존재를 포함하여) '비천함'을 뛰어넘어 거룩함을 갖게 된다. 자기희생을 통한 구원-치유를 완성함으로써 신화(神化)된 고귀한 여성이 되는 것이다.

벽노는 드디어 긴 눈물여행을 마치고 만기량이 있는 만리장성 부역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남편은 이미 단장바위(斷腸岩)에서 죽어 시신이 무겁고 무거운 돌벽 아래 묻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된다. 이에 벽노는 돌을 품고 단장바위의 끝까지 올라갔다.

소만이 고개를 돌려 단장바위를 가리키며 말했다.

“자네들 저 소리가 들리는가? 산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저 소리가 들리나 말일세! 단장바위 쪽에 쌓아올린 장성이 모두 무너지면서 만기량이 땅에서 튀어 올라왔단 말일세!”⁵⁹⁾

백낭자는 이질적인 존재였으므로 남들은 그를 이용할 수는 있어도 '사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⁶⁰⁾ 법해가 아무리 주문을 외우고 사람들이 아무리 옹황주(雄黃酒)를 쏟아 부어도 그는 뱀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인간 세상의 아름다운 부인이었다. 용모가 바뀌지 않았다.⁶¹⁾

예가 선단을 먹었다면 그는 신의 세계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런데 선단을 먹어야 할 사람이 먹지 않았기에 이 선단이 부작용을 일으켰

59) 小滿回頭指着斷腸岩說，你們聽見了嗎？聽啊，是山崩地裂的聲音，斷腸岩那邊的長城都塌了，萬豈梁他們要從地下跑出來啦！蘇童，220쪽；김은신 옮김，284쪽.

60) 柳江夏，「전복적 사유 양식으로서의 '신화 다시 쓰기': 『人間』에 드러난 우생학적 알레고리를 중심으로」，『中國文學研究』，제48집，2012，69쪽.

61) 她却還是她，一個人間的美婦人，不改其容。李銳，137쪽；김택규 옮김，267쪽.

다.

인간세상의 모든 것이 흐릿하고 뿌옇기만 했다. 세상은 보이지 않고 뿌연 먼지만 보였다. 그녀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달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달나라는 참으로 적막했다. 이곳에서 그녀와 함께 지내는 것은 희디흰 옥토끼 한 마리뿐이었다. 긴긴 밤, 바다처럼 푸른 하늘,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향이는 지난날을 모두 잊었다. 인간 세상에서 했던 사랑을, 자신이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한 ‘후예’라는 남자를 잊었다.⁶²⁾

향이는 선단을 먹은 뒤에 달로 갈 줄 몰랐고, 달에서 외로이 지내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다면, 주모는 격살이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것도 같다.

무지개가 그들을 감싸서 하늘로 올라가고 또 올라갔다. 그들의 모습이 하늘정원에 들어간 뒤에는 하늘에서 꽃비가 하염없이 내렸다.⁶³⁾

네 여성 주인공의 마지막 대목은 모두 비극적이다. 그래서 이들이 모두 조력자로 선택되어 ‘희생양’이 되었을 개연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벽노가 남편을 찾아가지 않았으면, 복사골에서 벽노는 남들에게 계속 따돌림을 당했을 것이다. 벽노가 남편을 찾아갈 것이라고 하자 남들이 비웃고 욕한 것을 보아도, 벽노가 고향에서 계속 산다고 해서, 처지가 나아지고 지위가 올라갔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다. 거기서 벽노는 우울증에 걸린 채로 망부석이 되었을 것이다. 백낭자는 백사였

62) 人世間的一切已看得不太清楚了, 不見人實見塵霧, 嫦娥開始了奔月歷程, 她不自主地向月宮飛去。……月宮裏非常孤獨, 在這裏, 與她做伴的只有一隻白色的玉兔。漫漫長夜, 碧海青天, 隨着歲月流逝, 嫦娥已忘了過去, 忘了人間曾有過的一段愛情, 忘了那個深愛的叫后羿的男人。葉兆言, 292-294쪽; 김은신 옮김, 387-389쪽.

63) 然後, 彩雲還繞着他們上昇, 上昇, 他們的身影昇入了天庭後, 天空降下了陣陣花雨。阿來, 353쪽; 문현선 옮김, 727-728쪽.

던 비밀이 폭로됐다. 정체가 밝혀진 이상 사람과 더불어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살아갈 수 없다. 자진하여 법해의 바리 속으로 들어가는 길만이 백낭자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이었다. 허선이 백낭자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백낭자가 죽어서 모습은 사람이었다고 해도, 백낭자는 자신이 왔던 세계로 돌아갔을 것이다. 허선은 백낭자의 세계로 갈 수 없다. 이들 부부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함께 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향아는 선단을 먹었기 때문에 ‘적막하기 짝이 없는’ 달로 갔다. 서왕모는 후예에게 달랑 선단 한 알만 주었다. 상제는 향아가 사람이니까 희생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예가 선단을 먹고 향아의 손을 잡아주기, 격살이가 두 왕비를 데리고 귀천하듯이, 향아도 예의 손에 이끌려 신의 세계로 들어오기를 바란 것일지 모른다. 격살이의 귀천이 진정 하늘나라로의 귀환이 아니라면, 그의 승천 장면은 순장(殉葬) 의식의 미화된 표현일 혐의가 짙다. 주모가 “남편을 애도하기 위해 불타는 장작더미에서 재의를 치르며 죽고 싶어 했는지”,⁶⁴⁾ 스스로 무덤 속에 파묻힌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하지만 주모는 질투심 때문에 격살이 왕의 탈선을 부채질하고 곤경에 빠뜨린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속죄양이 되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4. 나오며

‘신화 다시 쓰기’ 소설 속의 여성 주인공들은 자신의 비천한 신분을 부정하지 않은 채로 ‘고난’을 통해서 거룩한 존재로 거듭났다. 그들도 남성 주인공처럼 여러 경로의 시련을 거친다. 영웅의 뒤에는 조력자

64) 가야트리 스피박 외, 태혜숙 옮김,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서울, 그린비, 2013, 84-98쪽.

가 있기 마련이다. 이런 여성 주인공의 도움과 희생이 없으면 남성 주인공은 ‘영웅’으로 승배될 수 없다. 이들 여성 주인공의 조력자로서의 길은 독자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영웅’의 흥망성쇠를 답습한다. 여성 주인공이 조력자가 되려면 그들도 조건을 갖고 고난을 겪어야만 남성 주인공과 더불어 대단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여성 주인공의 조력자 형상에 대해 다음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여성 주인공이 저마다 지닌 특징이 조력자이자 희생양으로 지목될 요건으로 작동했다. 그들은 충분한 자의식을 갖고 자각적으로 운명을 개척해나가지 못했고 단순히 ‘사랑의 이름으로’ 순종하는 한계를 보였다.

둘째, 여성 주인공은 직접적인 ‘고난’을 통해서 남성 주인공의 신격화와 영웅화에 조력자 역할을 수행한다. 그럼으로써 여성 주인공 자신도 그에 버금가는 고귀한 존재로 승화되었다. 때문에 이들 신화전설 속의 남녀 주인공의 ‘고난’은 ‘희생양’이 되는 과정이자 통과의례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비천한 신분의 여성이 거룩한 존재로 미화되는 스토리 라인에서 여성 주인공과 작가가 독자에게 제시하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사람과 ‘사람다움’과 사람답게 사는 문제일 것이다. 이들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용서이며, 화해이며, 소통과 나눔의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박수를 보낼 수 있다.

벽노가 없었으면 황권이 엄한 시기의 남성 수난사, 부역에 끌려가고 만리장성 노역장에서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 만기량과 같은 힘없는 백성의 삶은 영원히 성벽 아래 묻혔을 것이다. 백남자가 없었으면, 허선의 순애보는 비정상적이고 엽기적이며 심지어 사람을 배반한 이야기로 치부되었을 것이다. 후예와 격살이도 항아와 주모가 없었다면 신화적 존재의 영웅담은 단조로운 에피소드에 머물렀을 것이고, ‘다시 쓰기’의 빛발도 밝지 못했을 것이다.

參考文獻

- 가야트리 스피박 외, 태혜숙 옮김, 『서발틴은 말할 수 있는가』, 서울, 그린비, 2013.
- 로버트 시걸, 이용주 옮김, 『신화란 무엇인가』, 과주, 아카넷, 2017.
- 리루이, 김택규 옮김, 『사람의 세상에서 죽다』, 서울, 詩作, 2010.
- 르네 지라르, 김진식 옮김, 『희생양』, 서울, 민음사, 2007.
- 르네 지라르, 김진식·박무호 옮김, 『폭력과 성스러움』, 서울, 민음사, 2009.
- 쭈통, 김은신 옮김, 『눈물』, 과주, 문학동네, 2007.
- 아라이, 문현선 옮김, 『거싸얼 왕』, 과주, 문학동네, 2016.
- 예자오옌, 김은신 옮김, 『후예』, 과주, 문학동네, 2014.
- 배도임, 「신화 다시 쓰기: 李銳의 『人間』, 葉兆言의 『后羿』, 蘇童의 『碧奴』, 阿來의 『格薩爾王』의 '반영웅주의' 비교를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제73집, 2015.
- 柳江夏, 「전복적 사유 양식으로서의 '신화 다시 쓰기': 『人間』에 드러난 우생학적 알레고리를 중심으로」, 『中國文學研究』, 제48집, 2012.
- 阿來, 『格薩爾王』, 重慶, 重慶出版社, 2009.
- 戴不凡 외, 『名家談「白蛇傳」』, 北京, 文化藝術出版社, 2006.
- 李銳, 『人間』, 重慶, 重慶出版社, 2007.
- 劉曉輝, 『格薩爾史詩/新疆瑪納斯』, 長春, 吉林出版集團有限責任公司, 2014.
- 魯迅, 『魯迅小說全集』, 武漢, 長江文藝出版社, 2005.
- 施曉宇, 『大學文學寫作』, 福州, 福建教育出版社, 2012.
- 蘇童, 『碧奴』, 重慶, 重慶出版社, 2006.
- 田漢, (京劇) 『白蛇傳』, 北京, 作家出版社, 1955.

- 葉兆言, 『后羿』, 武漢, 長江文藝出版社, 2011.
- 張恨水, (中國傳奇第六冊) 『白蛇傳』, 台北, 莊嚴出版社, 1990.
- 趙永斌, 『尋找太行: 中華文明的源頭究竟在哪裏』,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12.
- 朱曉東, 『戲曲』, 重慶, 西南師範大學出版社, 2014.
- 趙彬·蘇克軍, 「名字背後的隱喻和象徵——對蘇童新作『碧奴』題名的素解」, 『名作欣賞』, 제6기, 2007.
- 黃建新, 〈求求你, 表揚我〉, 寰亞電影有限公司, 北京榮星文化傳媒有限公司, 北京太合影視投資有限公司, 北京快樂新昇文化傳播有限公司, 2014.

Abstract

A Study of the ‘Helper’ Aspect in the Heroines in ‘The Myths’ Series

Bae, Do-im

The Myth of Meng Jiang Nu written by Su Tong, *The Myth of HouYi and ChangE* written by Ye Zhaoyan, *The Myth of Lady White Snake* written by Li Rui, and *The Song of King Gesar* written by A Lai are all created under the planning of The Myths project.

BiNu, ChangE, Lady White Snake, and ZhuMu, who are the heroines of the novels in the Myths project, are mediators and helpers who solved the problems and conflicts around the protagonists who had struggled. They overcame their unfortunate childhood, left a journey of affliction, and got to heal others’ wounds as well as their own. These four heroines were beyond the individual misfortune and agony of tribulation, and practised sacred love. Therefore, they could pass over the prototype of their original life and were made sacred as a new person. They were able to sympathize with other people’s troubles, embrace other people’s wounds, love others, make a society in which all can share together, and have existed as a future-oriented ‘true human’ in an open concept. The ultimate message that these four heroines and the writers give us is forgiveness, reconciliation, and the communication and sharing.

Key words : The Myths, helper, heroine, sufferings, sacred

투 고 일 : 2019. 1. 10. / 심 사 일 : 2019. 1. 15.~ 2019. 2. 15. / 게재확정일 : 2019. 2. 20.